

## 1. 합격자 학습정보

|                          |              |     |     |    |    |
|--------------------------|--------------|-----|-----|----|----|
| ■ 1차 시험 응시 횟수            | ( 2 ) 회      |     |     |    |    |
| ■ 2차 시험 응시 횟수            | ( 3 ) 회(헌동차) |     |     |    |    |
| ■ 총 수험기간                 | ( 27 ) 개월    |     |     |    |    |
| ■ 1차 시험 준비 방법 (중복 선택 가능) | 실강           | 동영상 | 스터디 | 독학 | 기타 |
|                          |              | 0   |     |    |    |
| ■ 2차 시험 준비 방법 (중복 선택 가능) | 실강           | 동영상 | 스터디 | 독학 | 기타 |
|                          |              | 0   |     |    |    |
| ■ 프라임법학원 수강이력            | 있음           |     |     |    |    |

## 2. 합격수기

- 아래 5개의 테마를 포함한 합격수기를 작성해주시면 좋습니다

### Theme. 01 공인노무사를 준비하게 된 동기와 수험기간

#### (1)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1기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게 된 직장인입니다. 저는 약 2년간 직장병행으로 공부하다가 시험 직전에 두 달 동안 전업으로 준비해서 노무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 노무사가 아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장병행으로 아득바득 공부했던 제 노하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합격수기를 작성합니다!

#### (2) 올해 2차 시험 점수

노동법 63점 / 행정 58점 / 인사 62점 / 노경 66점 : 평균 61.29

#### (3) 기존 직장과의 현재 직장

저는 기존에 군 조직에 있었습니다. 저는 장교였어요. 특히 저는 군부대 중에서도 일도 많고 분위기도 흥흥한(?)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정~말 많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점심 시간에 밥도 최대한 빨리 먹고 일을 끝내야 할 정도였고, 근무시간 중에 단 몇 분이랄도 쉴 틈이 주어지지 않는 정도였어요.

제 생각에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것은 일반 직장인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공부환경이 열악합니다. 저희는 당직근무가 일주일에 세 네 번 있어서, 밤을 샌 당일과 잠을 자야하는 그 다음 날은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훈련이 있는 주간은 며칠 동안 공부를 할 수가 없었구요. 군대는 위수지역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제 부대는 경기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열악한 환경을 뚫고 어떻게 해서든 공부할 여건을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차곡차곡 실력을 쌓은 뒤, 시험 두 달 전 전역을 해서 그때 실력을 폭발시킬 수 있었답니다.

지금 저는 대치동에서 전업 논술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면서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 (4) 노무사를 준비하게 된 동기

저는 3년 전, 로스쿨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법을 다루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는 로스쿨 진학을 포기했어요. 3년 동안의 로스쿨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 1년에 2천만원이라는 학비 등 이외에 여러 이유로 저는 로스쿨에 가지 않고 다른 길을 모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능성을 모색해본 결과, 법을 다루면서 전문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노무사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대신, 노무사 시험을 군에 있을 때 합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제 전략은 정확히 적중했어요. 저는 군에 있을 때 필사적으로 공부를 해서 결국 전역 후 곧바로 합격의 기쁨을 맞게 됩니다.

#### (5) 수험기간

저는 2020년 3월경, 노무사 1차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수험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해 1차 시험에 합격 후 2차 시험은 GS0기 강의도 다 못 듣고 시험을 치렀고, 그래서 곧바로 GS0기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2021년에는 시험을 치르고 나서 3개월 간 쉬고 다시 수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총 수험기간은 2년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Theme. 02 나만의 학습방법 및 노하우/전략

#### (1) 수험생활은 8할이 전략이다!

수험생활은 매 순간 순간이 의사결정입니다. 내가 노무사를 준비하는 게 맞는 것인지, 강사는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선택과목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답안을 쓸 때 이 논점은 쓸지 말지 등, 정말 매 순간순간이 의사결정의 연속이에요.

달리 말하면, 의사결정을 탁월하게 하는 사람은 수험생활에서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의사결정을 탁월하게, 전략적으로 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갈팡질팡하며 남들 의견들 들으려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혼자서 이것저것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의사결정 능력이 갖춰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제가 찾아야 할 최소한의 정보만 찾은 후, 그 뒤로 혼자서 생각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래와 같아요! 이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공유해드립니다.

#### [내가 군대 안에서 노무사를 하기로 선택한 이유]

노무사 수험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의사결정의 싸움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노무사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이라 생각했고, 지금 돌이켜보니 그 전략이 적중했어요.

(1) 먼저 군대에 있는 시간을 허비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하나 설정하고 그걸 성취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 그럼 그 목표가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이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생각해봤어요. 저는 학부 때 법학에 흥미를 느껴 법학을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또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중간 기말고사를 보면, 책의 페이지 수까지 외웠을 정도로 암기를 했던 독종이었어요. (3) 게다가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노무사 시험은 회계사처럼 전업으로 3년 공부해도 붙을까 말까 한 시험이 아니더군요.

반면, 회계사나 세무사는 경영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제외시켰고, 변리사도 이과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시켰죠. 이처럼 제가 가진 강점들을 고려해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노무사보다 적절한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았고,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임이 드러났어요. 실제로 저는 전역하는 그 해에 합격을 했습니다.

#### [내가 선택과목을 노동경제학으로 결정한 이유]

선택과목을 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전략적으로 결정했어요. 저는 제가 가진 강점과 제 상황을 깊이 고민해봤어요. (1) 우선 제 강점을 보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학을 꽤 잘했어요. 문과 머리보다는 이과 머리였죠. (2) 또한 제 상황을 고려해봤어요. 저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많아도 5시간 이상을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공부량이 적다고 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두 가지 생각이 결합한 결과, 저는 노동경제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당연한 귀결이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강점과 상황을 혼자서 잘 생각해보시길 바라요! 그럼 '당연히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전략적 의사결정입니다.

#### [내가 100% 인강으로만 들은 이유]

제가 수험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인강으로만 합격했다는 합격수기가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래서 저는 실강을 들어야 한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한 끝에, 인강으로만 승부를 보기로 결정합니다. 이때도 전략적 판단을 했어요.

(1) 첫째, 당시 제가 있던 곳에서 학원까지는 무려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 한 시간 동안 공부를 한다고 결심해도 제대로 되지 않을 터, 따라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였어요. (2) 둘째,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강을 듣는 사람들만 성적이 잘 나온다고 볼 근거가 없었습니다. (3) 셋째, 저는 이해가 한 번에 가지 않는 타입이라 강의를 자꾸 돌려봐야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저는 오로지 인강으로만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효과적인 공부법으로 판명이 났어요.

#### [필속이 느린 내가 선택한 전략]

저는 수험기간 내내 필속이 느려 정말 답답했어요. 최고 답안들은 15페이지, 16페이지를 쓰는데 저는 12페이지를 겨우 채우는 걸 보면서 진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가서 물어보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답안을 이 정도밖에 못쓰면서도 시간이 오버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여기서도 전략적 판단을 내립니다.

곧바로 A4를 펼쳐서, 제가 양보할 수 없는 시간과 양보해야만 하는 시간을 생각해봤어요.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은 득점에 유리한 시간들, 즉 답안 포섭하는 데 걸리는 시간, 판례를 쓰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이었어요. 판례와 포섭을 얼마나 풍부하게 쓰느냐가 득점에 직결되므로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반면 <양보해야만 하는 시간>은 시간을 줄여도 득점에 크게 영향이 가지 않는 시간, 즉 개요 짜는 시간, 인트로 쓰는 시간, 각 판례나 조문의 부연설명 쓰는 시간 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양보해야만 하는 시간>을 아껴서 시간을 확 줄이기로 결심합니다. 이 연습을 GS3기 내내 했고, 결국 저는 실전에서 모든 과목을 시간 내에 적절한 양(노동법은 9-10페이지, 그 외는 12-14페이지)을 써내는 데 성공했어요.

### [1차 시험은 합격 점수를 약간만 상회하도록 공부]

1차 시험 준비는 특히 전략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노무사 시험의 꽃은 1차가 아니라 2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차 시험에 쏟는 노력을 최소화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1차 시험의 성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1차 시험의 성격은 다음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1) 첫째, 1차 시험을 만약 제대로 공부한다면 양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노동법의 부속법령이 무려 10문제가 나오고, 민법도 양이 엄청 방대해요. 사회보험법은 말할 것도 없구요. (2) 둘째, 1차는 객관식입니다. 이 두 가지 전제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됩니다. 즉, 1차는 2차 시험과 달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봄으로써 눈에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완벽히 암기해서 쏟아내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1차는 기출 위주로 풀면 됩니다. 단, 노동법과 민법, 경제학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사회보험법은 법이 계속 개정되기 때문에 강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노동법과 민법, 그리고 경영 경제학은 [기본인강 듣고 + 기출 계속 돌리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사회보험법은 [기본인강 듣고 + 교재에 있는 문제들 풀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한, 1차 시험은 60점만 넘기면 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2차와는 달리, 우리가 그 합격여부를 사전에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객관식이라 정확한 점수를 우리 스스로 내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혼자서 연습하실 때 전체 평균 점수가 65점~70점 정도로 나오도록 계속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럼 시험에서도 대략 그 점수대가 나옵니다. 꼭!! 너무 오버해서 80점 받도록 공부하지 마세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 시간에 2차에 시간을 쏟으셔야 해요. 이게 바로 1차 시험의 전략입니다.

### [각 과목의 모든 문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임해야 한다]

각 과목 당 대략 세 문제씩 출제가 돼요. 우리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각 문제를 어떻게 풀지 전략을 미리 다 짜놔야 해요. 즉, '언제까지 개요를 짜고, 1-1문은 몇 분까지 풀고, 1-2문은 몇 분까지 풀고, 2문은 몇 분까지 풀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해요. GS 3기까지의 작업은, 결국 이 전략을 확정하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컨대, 저는 노동법 같은 경우는 15분 넉넉히 개요를 짜고(단, 절대 15분은 넘지 않고), 35분까지 1-1문을 풀고, 55분까지 1-2문을 풀고, 75분까지 2문을 풀기로 전략을 짰어요. 그러나 100% 이 시간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 1-1문에서 시간이 길어진다면 1-2문에서 시간을 확 줄이기 위해서 '문제의 소재'와 법규정을 줄이는 작전을 짰어요. 이런 식으로 GS 3기까지 모든 과목에 대한 답안 작성의 전략을 세우셔야 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죠. 인사노무관리 같은 경우는 <외운 걸 단순히 뱉어내는 문제>와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 이렇게 두 유형으로 나뉘어요. 올해 인사 1문("관리층의 교육훈련 기법 6가지를 쓰시오")이 전자의 대표적 유형이고, 올해 인사 3문("포용전략, 압박전략, 회피전략")이 후자의 대표적 유형이죠. 인사노무관리 같은 경우는 매번 답안 작성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게 주어진 20분이라는 개요 시간 안에 치열한 전략 게임을 치러야 했어요. 그래서 <외운 걸 단순히 뱉어내는 문제>는 개요 짜는 데 1분컷 하고,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는 개요 짜는 데만 한 5분-10분 공을 들여서 생각해냈죠. 이처럼 모든 과목의, 모든 문제에 대한 전략을 세워 놓으면 좋아요. 그럼 공부를 스마트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 (2) 시험 불안감을 없애는 거의 유일한 방법 : 모의고사

저의 첫 번째 수험 노하우가 '전략을 잘 짜자'였다면, 이제 두 번째 수험 노하우를 알려 드릴게요. 바로 '모의고사'를 잘 보는 겁니다. 저는 이 노하우가 제 공부법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방법을 수능 때도 썼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효과적이었어요.

저는 잘못된 공부법으로 재수를 했었고, 이번 노무사 수험 때도 잘못된 공부법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어요. 둘 다 '인강에 치우쳐 공부하느라' 1년을 날렸죠. 여러분도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강은 최소화하고, 진짜 공부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강을 듣는 시간이 공부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어떠한 지식도 쌓이지 않아요. 특히 인강 수강생들은 1.5배속 이상으로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 더욱더 머릿속에 쌓이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강의를 '들음' 뿐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 뇌는 이것을 공부시간이라고 착각하죠. 정말 정말 위험한 착각이에요. 저도 생유예까지만 해도 인강을 듣는 것만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사노무관리 같은 경우는 50점이라는 처참한 점수가 나왔죠.

두 번째 이유는, 매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걸 공부를 자의적으로 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직장인에게 중요한데요!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계속 그 분량에 대해 회독을 돌리면서 우리는 비로소 그 지식을 머릿속에 짹짹 눌러 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인들에게 수험 멘토링을 할 때, 모의고사를 절~~대 빼먹지 말고, 나아가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메타인지'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력에 대해 잘 몰라요. 하루에 막 12시간씩 암기 하다보면 내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줄로 착각해요. 그런데 이 생각은 모의고사를 한번 보고 나야 처참하게 무너지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비로소 객관적으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메타인지'라고 하죠?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드는지 시험해보세요. 그리고 GS 3기까지 꼭 상위 10% 안에 꾸준히 들려는 시도를 해보세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런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내 완벽에 가까워집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강사님들의 '모든' 모의고사를 착실하게 따라가고, 높은 점수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합격하실 겁니다. 제가 이것을 뼈저리게 느낀 건, 바로 유예 때였어요. 이때 저는 노동경제학에서 58점이라는 점수를 받았는데, 이때 제가 손도 못 댄 3문이 이미 출제된 적이 있었던 문제였어요. 저는 이미 출제된 논점은 재출제 되지 않을 거라 판단하고 공부를 아예 안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노경 강사님의 GS 3기 이후에 파이널 모의고사 때 나온 문제였더라고요. 저는 파이널 모의고사는 일부러 시간이 아까워 응시 안했었거든요. 만약 그 모의고사를 풀었더라면, 저는 그때 노경에서 60점을 훨씬 넘기고도 남았을 거예요.

## (3) 암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 [두문자 + 포스트잇]

제 블로그에 여러 공부법에 관한 책들을 참고해서 '암기 잘 하는 법'에 대해 정리한 글이 있어요. 그

중에서 노무사 시험에 효과적인 암기법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두문자' 공부법입니다.

두문자가 효과적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해요. 우리는 사실상 책 네 권을 달달 외워야하는 셈이기 때문에 암기 내용을 확 압축시켜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 두문자 자체가 잘 외워지지 않는 또 하나의 암기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두문자로 어떠한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무작위한 두문자가 바로 그런 경우죠. 예를 들어, 저는 노동법에서 '휴일근로' 파트에서 약정휴일도 가산임금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완전 불의타 판례)도 외우려고 '문경 규제관 명지방'이라는 두문자를 만들었어요. 이 두문자만 가지고는 전혀 어떤 스토리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 경우 이 두문자가 또 하나의 암기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언젠가는 반복해서 보면 외워지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책을 펼 때 완전히 새로 보는 두문자로 느껴질 거예요. 또 다음번에 책을 펴면 또 완전히 새로울 걸요? 그래서 이때 포스트잇을 활용해주셔야 해요. 포스트잇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두문자는 포스트잇에 적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공부하는 자리에 눈에 띄게 붙여놓으세요. 그럼 공부하다가 지칠 때 우리가 멍을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눈이 저절로 그 포스트잇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을 그 포스트잇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두문자라 하더라도 금세 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두문자+포스트잇' 활용법이에요.

#### [평일에 공부 / 주말에 인강]

제가 직장병행 분들 멘토링 해드릴 때 또 하나 강조드리는 게 바로, '무조건 평일에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전업 수험생들은 평일에 공부시간이 많아 인강을 듣는 게 큰 지장이 없지만, 직장인들은 평일에 공부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평일에 인강을 듣는 건 무조건 금물이에요.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인강을 주말에 몰아서 들으셔야 해요.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인강을 듣고 나자마자 바로 그날 들은 건 복습을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밀리다 밀리다, 나중에는 결국 들었던 인강을 다시 들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꼭 그날 인강은 그날 복습하세요!!

#### (4) 직장병행으로 합격하기 위해선 시험 직전 2주가 필요하다!

저는 생유에 때 직장에 노밍아웃을 하고, 시험 직전 휴가를 2주를 받았어요. 그때 2주간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직장인들이 시험 합격을 위해선 2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2주 휴가를 못 받는다면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본인이 천재거나, 현유에 정도 된다면 휴가를 안 쓰고도 합격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 현동차까지는 시험 직전 휴가가 2주 이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5) 직장인들은 무조건 스터디를 해야 한다!

직장인들이 공부할 때 가장 큰 적이 뭔지, 직장인 분들은 아주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업무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멘토링할 때 멘티 분들의 멘탈 케어를 담당하기도 하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케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 스트레스야말로 직장인들의 합격에 가장 큰 방해거리이기 때문

이죠.

이런 업무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업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없으니,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구축하는 거죠. 저는 스터디를 잘 활용한 결과, 아무리 직장상사한테 깨져서 업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 하더라도 아득바득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했기 때문이죠. 제가 들었던 스터디는, 노동법 판례 암기 스터디, 노동법 서브노트 통째로 암기하는 스터디, 행정 구조 잡기 스터디, 인사노무관리 구조 잡기 스터디 등이었어요.

#### (6) 형광펜 사용법 : GS 1기부터 사용하기

저는 막 형광펜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스타일은 아니예요. 제가 사용하는 형광펜은 주로 두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게 꽤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형광펜은 GS 1기 때 사용합니다. GS 1기부터 각 강사님들께서 시험을 보시거든요. 이때 시험 보기 직전에 그 시험 부분에 대한 회독을 3회는 돌리셔야 해요. 이때 한 번 회독을 돌리고, 두 번째 회독 돌릴 때 암기가 안 된 부분을 형광펜으로 칠하고, 세 번째 돌릴 때 그 형광펜을 위주로 회독을 한다면, 직장인분들도 모의고사를 잘 치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형광펜은 GS 3기 때 사용합니다. 아무리 외워도 외워도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3기 때 이런 부분을 형광펜으로 칠해서 이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외우는 겁니다. 단, 첫 번째 형광펜 사용은 주황색과 같은 연한 색을 사용하는 게 좋고, 두 번째 사용하실 때에는 초록색이나 파랑색과 같은 진한 색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형광펜 부분은 어차피 3기쯤 되면 웬만한 부분은 다 외웠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은 연한 색으로 하는 게 좋아요.

#### (7) 순 공부시간에 제발 집착하지 말자!!!!

카페를 보면, 수험생들이 '순 공부시간'이 얼마인지 서로 얘기하고, 비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 순 공부시간이 이 정도면 적절할까요?"라고 묻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순 공부시간을 늘리기 위해 구루미 캠 스터디까지 진행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순 공부시간을 중요시 하는 건,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현상입니다. 순 공부시간은 정말 전혀 중요치가 않아요!! 이에 대해 쉽게 논증할 수 있어요.

첫째, 공부시간은 공부를 잘 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이미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공부시간이 12시간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하루에 잠깐 시간 내서 복습한 것만으로도 자기 지식을 보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수험생들의 목표는 다름 아닌, 공부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공부 내용을 전부 집어넣는 게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 공부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어떤 지식을 어떻게 넣느냐'이지, '순 공부시간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예요. 순 공부시간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머릿속에 완전히 넣었는지를 측정해야 해요.

둘째, 순 공부시간을 목적으로 하면 공부가 비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순 공부시간을 측정한답시고 열품타 스터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캠을 켜놓고 멍을 때리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런 저를 보면서 곧바로 열품타 스터디를 때려쳤습니다. 반면 판례 암기 스터디를 한다고 해볼까요?

판례 암기 스터디는 중장기적인 자신의 공부 분량을 미리 설정하고, 그에 따라 하루에 일정 분량을 암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만큼 외워놓지 않으면 뒤에 가서 밀린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례 암기 스터디를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순 공부시간을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는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나가죠. 저는 그래서 멘티분들에게 이처럼 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 암기를 하는 스터디를 해야 한다고 말해요.

제가 시험 직전에 전업을 할 때, 제 순 공부시간을 대충 계산해보니 한 13시간~14시간 나오더군요. 제가 이때 순 공부시간을 13시간~14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몸부림 쳤을까요? 아니요. 제가 오늘 목표로 한 분량을 끝내기 위해 미친 듯이 달리다보니 그렇게 자연스럽게 됐어요. 바로 이게 목적과 수단을 정확히 알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공부 분량만을 생각하시고, 공부 시간은 재지 마세요!

### Theme. 03 과목별 수험방법 노하우 및 전략 & 과목별 강의 추천(프라임법학원 수강한 강의 포함)

여기서는 과목별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은 많이들 합격하시는 시험이고 이미 다른 분들께서 훌륭한 합격 전략을 많이 써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2차 시험 노하우를 설명할게요!

#### (1) 노동법 : 63점(김기범) → 59점(김기범)

##### [강사님 선택 이유]

김기범 노무사님은 1타 강사님이라서 선택한 이유도 있지만, 나긋나긋하게 설명해주시는 그 말투가 좋아서 선택했어요! 저는 수험 기간 내내 김기범 노무사님으로 수강했는데 전혀 후회 1도 없었습니다.

##### [판례를 논점과 같이 연계시켜 외우는 게 핵심]

제 잘못된 노동법 공부법을 공유할게요. 그건 바로 판례'만' 암기하는 스터디를 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1년간 판례만 암기하는 스터디를 했더니, 나중에 어떤 판례가 어떤 주제의 하위 항목인지를 모르더군요. 그래서 스터디를 바꾸었어요. 주제와 판례를 연계시켜 한 번에 암기하는 식으로 바꾸었죠.

예를 들면, 기존에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따로 외우고, '단체협약으로 개별조합원의 개별적 구체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를 따로 외웠다면, 이제는 이게 같은 주제 안에 묶이는 판례들을 깨닫고서 한꺼번에 같이 외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외우니까 그때부터 모의고사 점수가 오르더라구요!

##### [노동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 포섭, 포섭, 포섭!]

노동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꼽으라면? 바로 '판례'와 '포섭'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포섭입니다!

포섭은 기본적으로 한 바닥을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명심하신다면 나머지(논점의 정리, 법규정, 판례)를 어느 정도 분량을 써야할지 각자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번엔 제가 피켓팅 문제에서 미끄러져서 비록 59점이 나왔지만, 작년에는 모든 문제를 전부 사안 포섭을 한 바닥을 썼어요. 그래서 63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죠.

이에 대해선 뭐 따로 더 말씀 드릴 게 없네요. 노동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포섭을 한 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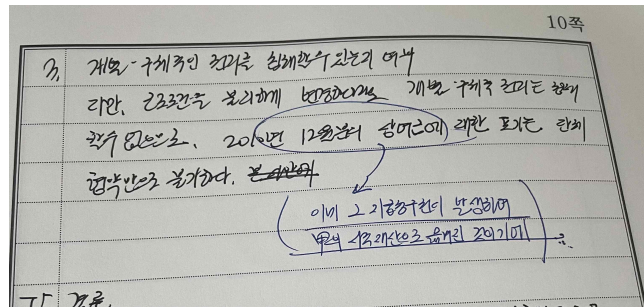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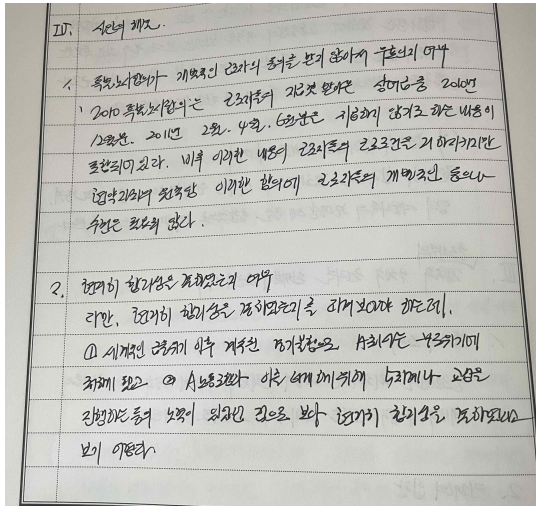


채우세요!

### [포섭이 어렵다면 기본적으로 판례 구조를 따라라]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 말은 노무사 수험판에서도 통하는 말입니다. 저는 채점자들이 제 답안지를 보기 좋다고 인식할 수 있게끔 답안을 구성했어요. 이를 위해서 포섭할 때 구조화를 했어요.

즉, 사안 포섭을 꼭 통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소목차화 해서 서술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 포섭이 정갈하다는 느낌을 주고, 논리정연하다는 느낌을 줘요.



그렇다면 소목차화는 어떻게 할까요? 기본적으로 판례의 소목차를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단체협약의 효력> 판례를 보죠. 이 판례는 [원칙 - 예외 - 판단기준]으로 소목차화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포섭도 [원칙 - 예외 - 판단기준]으로 소목차화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포섭을 덩어리 지어놓으면, 본인이 보기에만 만족스러운 답안이 될 겁니다!

### [킬러 문제를 찾고, 시간 안배를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

노동법은 문제가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중에 킬러 문제가 어떤 건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킬러 문제란, 판례 쓸 것도 많고, 포섭도 굉장히 길어서 기본 네 다섯 페이지는 써야 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근기법에서는 대표적으로 <사직서 제출 진의, 비진의>, <해고제한 기간> 등이 있고, 노조법에서는 대표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성>, <조합활동의 정당성> 등이 있어요.

저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이 킬러 문제들을 재빨리 찾고, 이걸 기준으로 다른 문제들의 시간 안배를 하라고 강조합니다. 각 시험은 타이트한 전략 게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똑같이 시간 안배를 하면 100% 시간 부족으로 답안을 완성 못할 확률이 높아져요.

저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에 기본 25분 쓴다고 가정했고, 다른 쉬운 문제들에서 그만큼 시간을 아껴야 한다고 전략을 짰어요. 이처럼 여러분의 필속을 고려해서 킬러 문제에 쏟을 시간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 [직장병행은 기본서로 외우는 것도 좋다]

저는 시험 마지막까지 기본서만으로 공부했어요. 네, 1000페이지 가량 되는 그 기본서요! 정말, 반으로 나눠서 제본을 할까 수없이 많이 생각했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진 못했어요. 왜냐구요? 제본마저 시

간담비였으니까요!

제가 기본서로 가져간 것도 오로지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서브노트는 강사님들께서 GS 2기 때부터 활용하세요. 그런데 저는 서브노트를 활용하는 게 직장인에게는 좋지 않은 전략이라고 판단했어요. (1) 우선 GS 1기까지 이미 기본서로 몇 회독을 돌렸는데, 이제 서브노트로 공부한다면 다시 새로운 책에 눈이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고 (2) 필기와 형광펜을 기본서에 다 해놨는데, 이걸 다시 서브노트에 옮길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직장인인 저에게 정말 1분 1초가 소중했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험 막바지에 회독을 어떻게 했냐구요? 회독 기본서로도 잘 돼요! 저 시험 직전에 기본서로 1회독 하고 갔어요! 저도 하기 전엔 ‘이게 될까?’ 했는데 되더라구요. 직장인 분들은 본인 시간 잘 고려하셔서 기본서로 단권화 할지, 서브노트로 단권화 할지 판단해보세요!

## **(2) 행정쟁송법 : 55점(김기홍) → 58점(윤성봉)**

### **[강사님 선택 이유]**

윤성봉 변호사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굉장히 꼼꼼하셔서 논점 일탈할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장점 때문에 윤성봉 변호사님을 선택했어요. 또한 직장인 분들이라면 본인을 뺀 세게 훈련시켜줄 강사님이 필요한데, 윤성봉 변호사님이 그런 점에서 딱 제격이라고 생각해요!

### **[논점 일탈 방지 : 사례집만이 답이다]**

행쟁은 논점 일탈을 많이들 두려워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논점 일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례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알려주는 주변에 없었어서 오로지 기본서만 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유예 때 두 문제에 대한 논점 일탈을 해버렸어요. 이걸 피드백 삼아서, 현동차 때는 사례집을 10번 이상 보고 갔어요. 물론 이번 시험은 논점 일탈할 문제가 없었지만요!

### **[기조가 바뀌었다. 길~게 외우자]**

이번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험의 기조가 약간 바뀌었어요.

원래 행쟁은 논점 일탈을 의도하면서 문제를 꼬아서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 문제를 15점 등으로 쪼개서 내곤 했죠. 다양한 논점들을 물어보면서 논점 일탈을 유도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 시험에서는 굵직굵직한 세 문제를 내면서, 문제 당 배점을 높였어요. 즉, 한 논점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쓸 수 있는가를 테스트했어요. 따라서 이제 수험생들은 행쟁에 대한 공부 압박이 더 커졌으리라 봅니다. 이제는 논점일탈도 대비하면서, 동시에 논점에 대해 자세히 그리고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셔야 해요.

### **[필속이 느린 사람은 ‘어떤 일반론을 얼마나 쓸 것인가’에 집중!]**

저처럼 필속이 느린 분들은 행쟁 모의고사에서 아마 높은 등수를 못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행쟁 GS 3기 마지막 모의고사 빼고는 모의고사에서 높은 등수를 받아본 적이 없네요. 다행히 마지막 시험에서 완전히 감을 잡아서 꽤나 높은 등수를 받았어요.

제가 행정과 오랜 기간 씨름하며, 필속이 느린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공부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어떤 일반론을 얼마나 쓸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걸 제가 1:1 수험 상담을 하면서 필속이 느린 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행정은 물어보는 논점과 관련한 모든 일반론을 다 쓰긴 사실상 힘들어요. 일반론이 너무나도 길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논점과 관련된 핵심적인 일반론을 위주로 쓰고, 나머지 일반론은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것만 어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가 나오고 제소기간을 물어봤다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의 제소기간 일반론은 확 줄여야 해요. 물론 다 쓰면 좋지만, 필속이 느린 사람들은 일일이 다 쓰고 있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 [이동하며 외우기 가장 좋은 과목, 행정]

직장인분들은 지하철 타고 이동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네 과목 중에 가장 이동할 때 외우기 좋은 과목이 바로 행정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책이 다른 과목에 비해 많이 얇기 때문이고, 둘째, 암기를 열심히 해야 할 일반론이 타 과목에 비해 얼마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 탈 때 무조건 행정 책을 펴서 외웠어요. 심지어 그냥 길거리를 걸어다닐 때도 행정 책을 펴서 외웠죠. 저는 걸어다니면서 앞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행정 책을 보고 다녔어요.

직장인분들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동하실 때 행정 책을 달달 외워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집에 서는 행정 말고 다른 걸 공부하시면 됩니다.

### (3) 인사노무관리 : 50점(최충락) → 62점(김유미)

#### [강사님 선택 이유]

저는 올해 시험부터 김유미 노무사님의 수업을 들었어요. 김유미 노무사님 수업으로 바꾼 이유는, 김유미 노무사님이 인사노무관리 암기 방법이나 답안 작성에 관해 아주 꼼꼼히 설명해주신다는 평가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저는 김유미 노무사님 강의를 수강한 덕에 무려 인사 점수가 12점이나 점프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 [처음엔 무조건! 키워드, 키워드, 키워드!]

김유미 노무사님은 키워드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말해주십니다. 심지어 GS 0기 수업은 목차와 키워드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저도 노무사 수험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인사노무관리는 반드시 우선 키워드 중심으로 외워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전체 책을 다 외운다고 할 경우 그게 불가능 할 뿐더러, 앞에서 외운 내용들까지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또한 키워드 중심으로 외우면 인사노무관리의 전체적인 그림을 알 수 있는데, 통으로 외우면 그게 안 되죠.

키워드 중심으로 외우셨다면, 그 다음에는 소목차들만 보고 그 아래에 어떤 키워드가 있었는지 떠올려보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흔히들 백지복습법이라고 하는, A4에 쪽 써보는 방법은 직장인들에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하지는 않고, 다만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는 연습만 해도 암기가 확실하게 되실 거예요.

결국엔 인사노무관리는 처음에 키워드가 중요하지만, 나중 가도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GS 3기 짬 되

면 한 단락 안에 본인이 그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는지가 실력의 척도가 되기도 해요. 따라서 인사노무관리의 처음과 끝은 키워드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 [키워드 외웠으면, 개념 + 장단점을 외우자. 특히 개념!!!]

키워드를 다 외우셨다고 판단된다면, 이제는 개념과 장단점을 완벽히 외우실 차례예요. 키워드가 숲을 그리는 과정이었다면, 개념과 장단점은 나무를 그리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개념'이에요!

이번에 많은 수험생들을 힘들게 했던, 인사노무관리 시험의 3문을 한번 볼까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교섭전략인 포용전략, 압박전략, 회피전략의 개념을 설명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포용전략, 압박전략, 회피전략의 개념만 설명한다면 아주 낮은 점수를 받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와 관련하여 내가 아는 모든 개념들을 다 써주는 겁니다.

위 문제에서 '노동조합'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으니, 노동조합의 개념을 써주셔야 해요. 그리고 '교섭전략'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으므로 교섭전략의 개념을 써주셔야 하구요. 아, 교섭전략이라는 단어를 배워보신 적이 없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우선 '단체교섭'의 개념을 써주셔야 해요. 그러면 그 단체교섭의 개념을 바탕으로 교섭전략의 개념을 어느 정도 유추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이 유추한 바로 그 개념을 써주시면 돼요.

저는 처음에 장단점을 위주로 외워서 결국 막판까지 개념 암기가 세세하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 그 개념들 다시 다 외우느라 고생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코칭'하면 그 개념을 교과서에 나온 대로 그대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면접'의 개념은요? 우리가 직무확대, 직무교차와 같은 빈출 개념들은 달달 외우면서도, 코칭이나 면접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은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착각해서 개념을 안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게 GS 3기 되어서야 드러나면 그때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이걸 제가 멘티분들께 멘토링을 할 때 특히나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미리 '모든' 주제에 대한 개념을 다 외워놓으시길 바라요!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장단점은 최소 3개씩은 써주셔야 해요. '특징'을 쓰라고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5개는 써주신다는 각오를 하구요. 예를 들어,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 관계론 특징을 비교하라고 한다면, 그 특징을 각각 5개씩은 써주셔야 해요. 장단점과 특징은 이처럼 풍부하게 써주는 게 핵심입니다.

### [주제별 인트로, 아웃트로를 정해놓아야 한다]

인사노무관리는 전문가처럼 답안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인트로와 아웃트로에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주제별로 어떤 인트로와 아웃트로를 써야할지 미리 정해놨어요.

우선 인트로부터 말씀 드리면, 인트로는 그 주제의 상위개념을 설명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꿀팁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이 주제에 대해 설명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올해 2번 문제가 “모집의 원천으로서 조직 내부모집의 개념과 방법을 설명하고, 장점과 단점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예요. 여기서 이 문제를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모집의 원천'이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선 '모집'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후, '모집의 원천'에는 내부모집과 외부모집이 있다고 설명해주시면 돼요.

반면 아웃트로로는 책의 중요한 개념들을 끌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웃트로로는 좀 더 어려워요. 아웃트로를 잘 쓰는 꿀팁은, 각 주제에 대한 아웃트로 소재들을 전부 다 정리해놓는 겁니다. 저는 아래에서 보실 수 있듯이 각 주제에 대해 아웃투로를 모아놴어요! 여러분들이 댓글도 보내달라고 하시면 보내드릴게요!(제가 다 외운 건 지워버리는 습관이 있어서 한 절반은 날아갔습니다ㅠㅠ)

<

ID 공인노무사

## 인사 '인트로, 아웃트로'

1) 조직의 성과를 궁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들

- Kotter & Haskett의 강한 문화, 적응적 문화
- 오우치의 Z이론(문화)
- 고성과 작업 시스템(제도)

2) **FFM**이나 **워라벨**, **MZ세대**, **유연화** 등 비슷한 주제

- GWP(Great Work Place) \*FFM에 있음
- **파급관점** \*FFM에 있음

3) 노사관계, 노사협력, **참가**

- WEF 노사협력 부분 전세계 최하위 점수
-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립방향('응집력' 고려)
- 버나드의 <조직균형론> - 유인과 공헌 간의 관계 관리가 잘 되어야 노사관계에 도움
- 역 U자형 모형(갈등과 성과와의 관계)

김유미 노무사님이 답안 작성법을 굉장히 세세하게 알려주신다는 장점이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요! 김유미 노무사님이 알려주신 인트로, 아웃트로 작성법을 알려드릴게요. 1문에서 내 답안을 뽑내기 위해 인트로+아웃투로를 써주면 좋아요(시간 없으면 아웃트로만). 그리고 2문은 3문 쓸 시간을 만들기 위해 담백하게 본문만 적구요. 3문은 웬만하면 시간 남겨서 아웃투로를 써주세요!

### [완성 단계에서 할 일 : 디테일에 신경쓰자]

GS 3기에 여러분은 이제 사실상 답안 쓰기 훈련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암기는 기본이고, 이제 답안 작성 디테일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인사노무관리에서 중요한 디테일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 때문에'를 많이 쓰자.** 김유미 노무사님이 많이 강조하시는 바지만, 인사노무관리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답하면 안 되고, 그 이유를 써주셔야 해요. 예를 들어 "최고경영층에 대한 보상관리의 문제점과 그 방안을 쓰시오"라고 할 때, 그 방안을 몇 개 던지지만 하면 안 되고, '그 방안이 어떻게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쓰셔야 해요.

**둘째, 연결고리에 신경을 쓰자.** 마찬가지로 김유미 노무사님이 많이 강조해주시는 바예요. 개념과 기법 간, 심지어 문제와 문제 간에도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직무분석 기법들을 언급하였는데, 직무분석 단계 이후에 직무설계 단계가 이어지므로 이하에서는 직무설계 기법들을 기술한다." 이런 식으로요!

**셋째, 막판에 1분 남기고 소목차에 부제를 달자.** 인사노무관리 고수가 되시면, 이제는 소목차에 부제

를 잘 다셔야 해요. 그런데 이건 조미료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한다고 뒤에서 시간이 밀리면 절대 안 돼요! 따라서 마지막에 시간을 1분 정도 남겨서 그 동안 못 달았던 부제를 꼭 다시면 돼요.

**넷째, 개요를 짜는 단계에서 각 문제 당 분량을 미리 생각하자.** GS 3기 정도 되면, 엄청난 분량에 치여서 시간 안에 답안을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 암기는 다 되어 있는데 답안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요 짜는 시간에 각 문제의 분량을 파악하는 연습을 했어요. 예컨대 25점짜리 문제는 서너 페이지를 채우면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은 문제라면 인트로에 상위개념부터 언급하기로 전략을 짰어요. 만약 네 페이지를 훌쩍 넘길 것 같으면 인트로, 아웃트로, 연결고리 다 빼고 드라이하게 서술하되, 추가로 다른 문제에서도 시간을 확 줄여서 그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분배해야 했어요. 이처럼 개요 짜는 시간이 저에게는 모든 전략적 판단이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전쟁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 [합격 여부는 이해도가 가른다]

이해를 하고 답안을 쓰느냐 아니냐가 고득점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마일즈와 스노우의 공격형 전략 vs 방어형 전략에서, 이해도가 깊어졌다면 공격형 전략의 경력개발 파트에 '발탁 인사제도'를 쓸 수 있을 것이고, 방어형 전략의 경력개발 파트에 '연공주의에 따른 승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이해도를 기반으로 적재적소에 다양한 요소들을 배치할 수 있게 돼요. 반면, 이해 없이 단순 암기만 한다면 각 내용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고 이상한 곳에 배치하게 됩니다. 결국 이게 답안에서 티가 나게 돼요.

그렇다면 자신이 이해한 게 맞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김유미 노무사님께 제가 어떤 개념에 대해 이해한 취지가 맞는지를 자주 물어봤어요. 이 기법을 여기다가 쓰는 게 맞는지 물어봄으로써 제가 이해한 것과 강사님의 설명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파악한 거죠.

#### [생소한 문제는 반드시 하나 나온다고 생각하자]

저는 이번 3문을 마주했을 때 많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심이 되었죠. 왜냐하면 제가 모른다는 건 모두가 모르는 문제라는 뜻이니깐요! 오히려 이런 문제는 '얼마나 정신을 빨리 차리고 차분하게, 자신이 외웠던 것을 종합하여 보여주는지'에 따라 점수가 갈린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3번 문제를 잘 쓴 덕분에, 62점이라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반면 작년 3번 문제 기억하시나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시 수험생 중 어느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 깊게 배워본 적이 없었죠. 저는 그때는 올해와 반대로, 그 문제를 엉망으로 썼고 점수가 50점이 나왔어요.

내년에도 생소한 문제가 하나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션은, 그 생소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 전부터 미리, 제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세요!

**(4) 노동경제학 : 57점(장선구) → 66점(장선구)**

### [강사님 선택 이유]

저는 수험 기간 내내 장선구 박사님 수업을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노동경제학 강의에서 장선구 박사님만큼 전문성 갖추고 있으신 분은 없으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강의력, 필기 등 뭐 하나 빠지시는 게 없죠. 노경 들으시는 분들은 장선구 박사님 정말 추천드려요!

### [고득점의 비결은, 끝까지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노경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바로 모든 내용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건 노경을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노경을 선택할지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혹시 본인이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했는지 여부를 물어봅니다. 수학을 잘했다면 경제학을 이해하는 데 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경제학 노베이스인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노경 모의고사 때도 항상 극상위권이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은 꼭 강사님께 여러번 물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셔야 합니다. 저는 장선구 박사님 카페를 이용해서 박사님께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비록 박사님과 서로 한 번도 직접 뵈지는 없지만, 카페에서 박사님께서 제 아이디어를 기억하시고 평소에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시험 끝나고 나서는 합격하셨는지 여쭙보시더라고요!

은 너무 실력자라서 너무 많이 아셔서 실력만큼 점수 안나올까 우려되요. 전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구요. 극찬입니다. 노무사되시고 법학, 경영, 경제 어느 한 분야 공부도 계속해도 되실듯해요. ^^ 계속 화팅하세요~



ecomania  
2022.11.29



**첫댓글** 이번에 어떻게 되셨나요? 매번 좋은 멋진 질문을 해주셔서 기대하고 있던 분들 중의 한분인데요.

합격자 모임은 어려울듯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거하게 모이긴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저도 아쉽긴 하지만 어렵게 되었네요. ππ

죄송합니다.

L



2022.11.29

경자



박사님 저 노경 때문에 붙었어요! 노경 66점 받았



프라임 법학원

L



ecomania

2022.11.30



우아  
축하드립니다 짹짹  
역시 노경 보시는 눈이 남다르다고 봤어요  
합격자가 너무 많아서  
다 모일수 없고  
일부만 하는건 그렇고요 ㅠㅠ

이렇게 여러분도 꼭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박사님께 여쭙보시길 바라요! 아, 그렇다고 저는 박사님을 막 귀찮게 하진 않았어요! 혼자서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때 물어봤답니다. 그렇게 한다면 질문에 본인의 고민이 잘 드러나서 박사님도 예쁘게 봐주실 거예요!

특히 올해 1문에서 이해의 중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평소 알던 것과 달리 이번 1문에서는 X축이 여가가 아닌 노동으로 서술하라고 했죠. 많은 수험생들이 1문을 그냥 평소처럼 '여가'로 놓고 풀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1문을 쉽게 풀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X축이 여가인 그래프를 그냥 암기만 한 게 아니라, X축이 여가일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X축이 노동일 때도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었어요. 모의고사 때 단 한 번도 풀어보지도 않았고, 심지어 수험기간 내내 생각해본 적도 없는 것임에도, 완벽히 이해하고 있으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66점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노경은 이해가 가장 중요해요!

#### [이해 안 가는 것들을 '공리'로 삼고 공부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려는 노력을 끝까지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외우세요. 저는 아직까지도 산업의 노동수요곡선이 전부 다 가파라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 점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이 가파라지는 건 알겠는데 왜 왼쪽이 가파르게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외웠어요 ^오^

수학에서는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공리'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몇몇 부분들은 그냥 본인만의 '공리'로 받아들이고 진도를 쭉쭉 나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 [답안지가 예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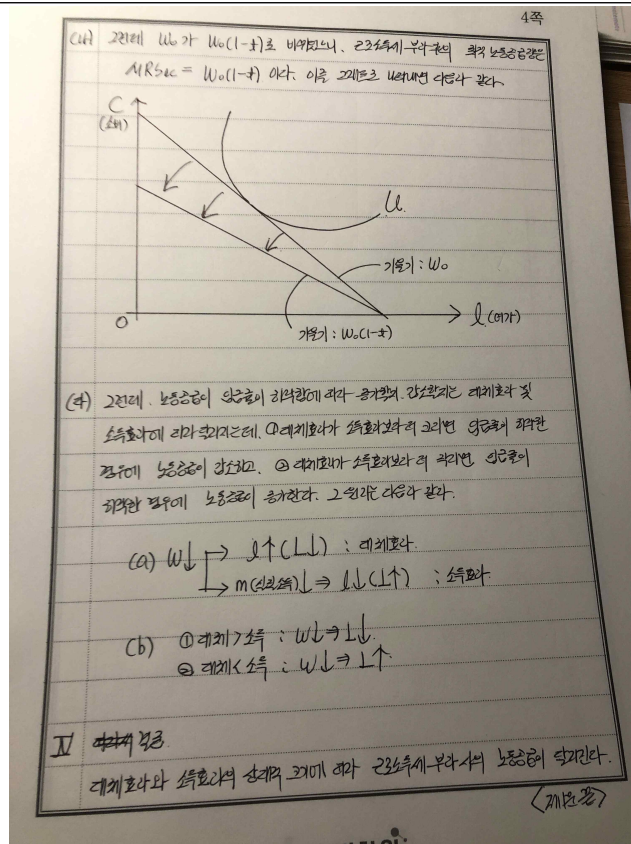
이건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노경은 답안지가 예뻐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글씨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답안지를 예쁘게 구성하는 몇몇 팁들이 있어요. 여러분께 그걸 말씀드릴게요.

첫째, 그래프를 아주 크게 그린다. 둘째, 줄처리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목차를 최대한 많이 써서 단락을 많이 나눈다. 셋째, 겁먹지 말고 화살표와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사용한다.



프라임 법학원





### [기출이 반복 출제된다는 특이한 점]

인사도 그런 측면이 있지만, 특히 노경은 기출된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모르고 작년 시험 준비할 때 기출된 부분을 아예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3문 독점적 노조 그래프를 아예 못그렸어요. 아예 못그렸는데도 57점을 받았으니, 그걸 그렸다면 아마 작년에 고득점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라요! 꼭 실전 시험 전에 지난 기출문제들을 다 풀어보고 갑시다.

### [단권화 필요없다. 그냥 다 외우자.]

1:1 멘토링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세요. 노경은 단권화를 어떻게 했냐구요. 그런데 단권화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외우셔야 해요. 오히려 저는 노경 단권화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노경이 은근히 사이드 주제에서 출제된 적이 많아요. 예를 들면 효율임금 파트에서 '고임금경제'에서의 노동수요곡선(2017년 기출)을 도출하라고 출제된 적이 있어요. 통상 효율임금이라고 하면 흔히 그 S자 모양의 그래프만 생각하시는데, 고임금경제의 노동수요곡선에 대해선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또한 준고정비용과 같은 사이드 주제들도 여러 번 출제되기도 했죠.

따라서 노경은 그냥 기본서로 끝까지 공부하세요! 회독은 어떻게 돌리냐구요? 그때 가면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어서 기본서로도 회독이 다 됩니다. 걱정 마세요!

### [목차로만 점수 매긴다고 생각하기]

노경 꿀팁 중의 꿀팁은, 바로 소목차를 잘게 쪼개는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항목마다 소목차화를

해주세요. 이때 도움이 되는 생각은 '채점자들이 목차만 보고서 점수를 매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 문제에서 물어보는 항목들을 잘게 쪼개서 그걸 다 목차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채점자들이 여러분의 답안에 좋은 인상을 갖게 되실 거예요!

#### [‘의의-모형의 가정’은 웬만하면 써주기]

저는 답안을 시작할 때 항상 '1-1. 의의 / 1-2. 모형의 가정'으로 시작했어요. 일단 경제학은 여러 가정을 기반으로 한 학문이기 때문에 모형의 가정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것도 그냥 바로 모형의 가정을 써주기보다, 마치 논문처럼 맨 앞에 '의의'를 써주면 교수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의의에다가는 후술할 주제의 개념과 내용 전개방향들을 써주시면 돼요.

#### Theme. 04 시기별 학습방법 및 시기별 강의추천

##### (1) GS 0기 학습방법

0기는 큰 그림을 잡는 시기예요. 그래서 교재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머릿속에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노동법>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판례를 암기하는 스터디를 하면 나중에 판례가 익숙해지니 좋구요. <행쟁>과 <인사>는 목차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노경> 같은 경우는 0기 강의에서 아직 기본서를 건드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강사님이 설명해주신 판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세요.

참고로, 0기 들을 때 이미 민법 강의는 다 들으셔야 해요. 1기 때부터는 일주일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민법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 (2) GS 1기 학습방법

1기가 사실상 정말 중요합니다. 1기에서 모든 강의를 따라가고, 모든 모의고사를 착실히 따라갈 수 있는지가 시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1기의 모든 강의를 잘 따라가고, 모든 모의고사를 착실히 본다면, 1기에서 그동안 애매했던 모든 안개가 다 걷히게 될 겁니다. 시험 전날에 1회독은 어떻게 하는 건지, 최고답안 후보들은 어떻게 책 내용을 그대로 찍어낼 수 있는 건지 등등에 관한 모든 비밀을 이때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1기가 모의고사를 본격적으로 보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모의고사를 보기 직전에 그 시험 범위에 대한 회독을 돌리면서 비로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을 잡게 되는 거죠.

단, 수험 이력이 얼마 안 된 분들이라면 1기 점수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단순히 감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긴 해야죠!

##### (3) GS 2기 학습방법

이때는 모의고사의 점수를 머리채 잡고 끌어올려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내 실력을 완성시킨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올해 합격한다고 하신다면, 3기 때 실력을 완성하려는 생각하면 늦습니다.

따라서 2기 때 모의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한 번 받아보려고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암기도 점점 완벽하게 될 거예요.

#### (4) GS 3기 학습방법

3기는 '노련해지는' 단계입니다. 인사관리를 예로 들면, 연결고리를 하나 더 쓰려고 하고, 소제목에 부제를 하나 더 달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3기는 이미 여러분의 암기가 절정에 달해 있으실 거예요. 물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건 계속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3기 때 중요한 건 아는 걸 속아내고 그 중에 어떤 걸 답안지에 쓸까, 하는 점이에요. 이제 비로소 시간 안에 답안을 풍성하고 예쁘게 구성하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팁들은 위에서 다 언급했기 때문에 위의 설명들을 참조해주세요!

3기 때는 상위 10% 안에 꾸준히 들어보세요. 그럼 시험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집니다.

#### (5) 시험 직전 한 달 학습방법

시험 직전 한 달에는 우선 학원에서 실시하는 파이널 모의고사에 꼭 참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파이널 모의고사 때 출제된 게 그해 시험에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때 마지막 모의고사를 꼭 보면서 실전 시험에서 내가 어떻게 풀지를 계속 시뮬레이션 돌려보세요.

시험 직전 2주에는 <5321 법칙>을 활용합니다. 시중에는 <6321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걸 비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5321 법칙>이 효과적입니다. 5일 안에 회독을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3일 안에 회독이 가능해져요. 6일은 너무 깁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5일, 그 다음에는 3일, 그 다음에는 2일, 그 다음에는 하루 안에 회독을 마무리 해보세요!

이때는 당연히 기본서(또는 서브노트) 외에도 지금까지 풀었던 모의고사 등까지 다 복습해야 해요! 행쟁은 사례집 보면서 모든 논점들에 대한 답을 내가 내릴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인사는 아웃트로 뭐 쓸지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셔야 해요.

#### Theme. 05 후배 예비 노무사님들을 위한 학습 TIP & 하고픈 말

##### (1)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길!

앞서 말했듯 저는 혼자 공부하다 보니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었어요. 그래서 결국 수험기간이 1년이 더 길어졌죠. 노무사 수험과 같은 고시류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합격 기간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합격수기도 많이 읽어보시고, 강사님들께 질문도 많이 하셔서 꼭 시행착오를 단축시키셨으면 좋겠어요!

##### (2) 답안 제대로 못써도 충분히 합격하는 시험

저는 이번 시험을 치르고 가족들에게 합격할 확률이 3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노동법과 행쟁은 잘 봤는데 인사와 노경은 망했다고 말했죠. 그런데 웬걸. 막상 까보니 노동법과 행쟁은 못 봤고, 인사와 노경은 엄청 잘 봤더군요. 그래서 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확신이 생겼어요. '이 시험은 까보기 전까진 모르는 거구나!' 그러니 시험 못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시험 직후부터 합격 발표 당일까지 생산적인 날들로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 (3) 시험이 끝나고 할 일들에 대한 꿀팁

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지 않을까 하여, 시험 직후에 뭘 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앞서 말했듯이 항상 무언가를 할 때 전략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했어요. 이번 시험 역시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기에, 그렇다면 9월부터 11월까지 어떻게 해야 생산적인 날들을 보냈다고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비록 난 시험엔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 3개월 동안 어떤 업적을 이뤄냈다”고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저는 며칠동안 고민을 했고 결국 계획을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곧바로 실천에 돌입했죠.

우선 저는 그 3개월 동안 ‘브런치 50인 출판 프로젝트’에 응모하기 위해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응모를 해서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수익 활동을 하기 위해 전자책을 하나 써서 크몽이라는 사이트에 등록을 했어요. 또한 강사로서의 커리어를 쌓아나가기 위해 대치동 학원들에 이력서를 뿌렸고, 지금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그 3개월 간 한 일들입니다.

이외에도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며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에서 히키코모리처럼 핸드폰만 하는 거예요! 이러면 할 게 없어 수험 카페만 들락날락 하게 되고, 그러면 시험에 대한 불안감만 증폭됩니다. 실제로 시험 직후에 카페에 들어가보면 그런 분들이 많더라구요. 여러분들은 시험 직후 3개월 동안 활동적인 활동을 하시면서(공부는 하지 마시고...) 시험을 잊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의 수험 생활에 행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